

제10회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AND DEMOCRACY(살아있는 미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서)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2명
2018년 4월 29일 경남 창원시 엘가커피에서

1. 램프 왈도 에머슨: 자립(1841) 계속

-안에 빛이 있고 밖은 공허한 사람이 있으며, 밖에 빛이 있고 안은 공허한 사람이 있다.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생각임에도 사회적인 이유로 잊고 있다가 권위에 의해 반성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게 된다.

가장 내적인 것이 때가 되면 가장 외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처음 생각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중략- 천재의 모든 작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발견하고, 스스로 거부한 자신의 생각이 타인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옴을 보게 된다. -중략- 내일 낮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정확하게 말할 것이며, 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보편성의 기회가 생긴다.

신은 그 뜻을 겁쟁이가 전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마음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야 안심하게 되고 명량하게 된다. 그러나, 말한 바와 달리 행한 바는 아무런 마음의 평화도 주지 못한다.

-신화(myth)빠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립할 수 없다. 자립이란 자기의 뜻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 외에는 모두가 이름뿐이고 덧없는 것처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배지와 이름, 큰 집단, 죽은 기관에 얼마나 쉽게 항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고상하고 달변인 사람들은 모든 올바른 길에서 나를 해치고 혼든다.

- 신화(myth)가 가득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며, 우상과 신화가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우상이 없어 가난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의견에 따라 살기가 쉽고,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기가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무리의 한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으로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편성이란 마음 속, 사람의 안에 있는 신이다.

자신을 믿으라: 모든 가슴이 이 강철로 된 실을 향해 댈다.

마음과 생명이 신에게 모습과 색채를 줄 것이다.

-일관성을 겁내면 안 된다. 매번,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다. 오늘의 내가 예전의 나와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그릇이 작은 정치인과 철학자와 성직자가 좋아하는 협소한 마음의 도깨비이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을 걱정하느니 차라리 벽에 비친 그림자를 걱정할 것이다. 오늘 생각하는 바를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내일 생각하는 바를 다시 분명한 말로 표현하라. 비록 오늘 한 말과 모두 어긋난다 할지라도.